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영종캠페인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경주시 일원에서는

‘천년의 빛, 천년의 장’이라는 주제로 9월 7일~10월 26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다. 세계 공연예술 축제, 월드비보이 페스티벌, 세계특두극축제, 캐릭터 판타지월드, 신라 왕경축 축제, 앙코르·경주 특별기획전, 백남준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홈페이지(www.cultureexpo.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

인천대공원에서

인천대공원 안에 국내 최초의 환경미레관이 개관했다. 녹색자료실, 지구환경과 도 시민제, 환경실습실, 체험학습장 등이 운영된다. 입장료 무료. 환경실습실 및 체험학습은 3일전 예약. 문의 환경미레관 홈페이지(www.grandpark.incheon.go.kr), (032)440-4967-9.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내걸었다.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며 초·중·고등부 중 자신이 속한 그룹에 따라 독서감상문, 독서신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nlcy.go.kr)에서.

서울 여의도공원과 보라매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가락을 살린 공연을 펼친다. 9월 8일에는 아외인형극 ‘황소가 된 돌쇠’가 보라매공원에서, 9월 15일에는 체험무용극 ‘자연을 닮은 우리춤’이 여의도공원에서, 9월 29일에는 ‘타악열전’이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펼쳐진다. (02)752-1946.

부산 벡스코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9월5~8일까지 펼쳐진다. 에너지 정책관, 가스관, 원자력 문화관, 지역난방관, 광물자원관 등 전시관과 에너지 전기박물관, 지구온난화 체험 등을 볼 수 있다. 입장료 무료. 문의 (02)850-3590-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연령별로 차별화시킨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의왕 용화사 법회 모습. 사진제공=용화사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 하려면?

“거긴 조용한 것이 꼭 ‘절집’ 같아.” 흔히 너무 조용한 곳을 두고 ‘절집 같다’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사찰은 속세와 떨어져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고인 장소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찰, 특히 도심 사찰과 포교당이 ‘절집’ 같기만 하다면 과연 좋은 일일까. 어린이들의 독자적 생활의 활성화와 웃음소리가 이제는 ‘절집’에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이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터.

□ 절에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찰을 찾게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불교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찰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사찰은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무작정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펴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요즘 아이들을 덩그러니 ‘절집’에 데려다 놓고 휴식을 즐기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고문이다. 무작정 “불교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반감만 살 뿐이다. 아이들이 “절에 가면 뭘 할 수 있는가요?”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너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라 답할 수 있어야 오는 아이들도, 준비한 사찰도 서로 민망하지 않다.

□ 요즘 사찰, 많이 변했어요!

이제 어린이청소년 법회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맞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 무엇이든 지역사회에 소속된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춤·노래·그림·영어·논술 등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절에 와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요즘 사찰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연등축제에서 인기를 끈 서울 보리사 비보이 댄스팀,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는 보리사 어린이법회에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각각 비보이 댄스와 힙합댄스·장구·찬불가 등을 가르쳐 온 성과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이들의 관심분야를 살려 재능교육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가능해졌다.

“불교는 이러니 이렇게 해” 반감만 사 영어법회·힙합댄스·장구 등 좋은 예 무엇보다 주지스님 관심도가 성패 좌우

절에서도 ‘춤’이라는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의왕 용화사는 적절한 분반수업을 통해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용화사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어린이에게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절에 오도록 만든다. 또 고학년 아동들은 한지공예, 오카리나 등의 수업으로 재미를 준다. 중학생에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불화그리기 수업’을 열어준다. 매주 30분 정도 전문 불화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함께 섬세한 작업을 하며 미술교육은 물론 심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정혜선원과 구룡사는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반긴다. 현장

조용한 것이 절집 같다 ‘옛 말’ 절에 가면 웃음꽃 핀다

에서 10여 년 동안 어린이법회에 매진하고 있는 주영 스님이 두 사찰의 어린이법회 지도법사다. 두 사찰은 서예·도자기·리코더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성교육 특강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지루할 새가 없게 만드는 것도 성공적인 어린이법회 노하우다. 이외에도 서울 화계사는 이미 영어법회로 유명하다. 서울 봉은사도 연극, 합창 등으로 어린이들의 불심을 이끌고 있다.

□ 재밌는 법회를 위하여!

잘 되고 있는 사찰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전략은 약한 편이다. 주영 스님은 “법회를 하려면 세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한다. 예를 들면, 사찰 주위 주차지 형태를 통해 아이들의 연령대를 추산하고 그에 맞게 법회를 준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기존 신도들과의 마찰 ▲어린이법회 선생님들의 전문성 결여 ▲법회 유지비 문제 등도 생각해 아할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관계자들 상당수가 “사찰 주지스님의 의지가 가장 기본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지스님의 관심도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법회의 성패가 좌우된다. 위의 사찰들도 모두 주지스님의 어린이청소년법회 지원 의지가 어느 절 보다 뛰어난 사찰들이다. 또 관계자들은 자모회 구성도 필요

수적이라 입을 모은다. 사찰과 아이들, 부모가 모두 유대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득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는 연극·성악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제 사찰은 어린이청소년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살려 ‘절집’을 어린이청소년 열기로 채우는 곳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는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1



2



3



4

의왕 용화사는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놀이프로그램(1)을, 고학년 어린이들에게는 한지공예(2) 오카리나 수업(3)을, 중학생들에게는 불화그리기(3) 등 세분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 영천목공예사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죽비

▲수작업 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옷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언해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중식]

## “고우 큰스님 초청법회”

◆날 짜 : 불기 2551년 9월 16일 일요일

◆시 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공생선원 대웅전

공생선원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신입문반 / 경전반 / 참선반 9월 6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653번지 삼한프라자 7층 Tel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



# 자주독립 · 여권존중 등 개화기 시대상 그려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가 한창이군요.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듯해요. 아이릴 때 시원한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고 그 자맥질하다보면 애면글면했던 일 잊어질 것 같죠? 그런 날은 인겔볼에 삼겹살 구워먹으며 해거름 노을 보면 참 행복할 텐데.

**자맥질** :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리며 뗏다 잠겼다 하는 것. 오랜 자맥질 끝에 물을 벗어난 잠수부처럼 나는 길게 숨을 내린다. <김성동<만다라>

**애면글면** :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가 애면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수었다.> <김유정<생의 반란>

**인겔볼** :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 <아궁이에 남아 있는 인겔볼을 후후 불어 종이에 불을 붙였다.>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이제 곧 떠나야 할 나그네만이 저 무는 해거름을 아쉬워하는 건 아니다.> <이문구<장한몽>

**아웅다웅** : 서로 트집을 잡아 자꾸 다투는 모양

**아웅하다** : 속이 오망하게 들어가 있다. 마음에 털 차서 기쁘게 여기는 기색이 없다.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교사)

##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이민작 '혈의 누'

이 작품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지요. 문명개화, 신교육 사상, 자유 결혼관 등을 주제로 청일전쟁(1884년) 직후부터 10년간 평양과 일본(오사카), 미국(워싱턴)을 배경으로 개화기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지요. 청일전쟁 당시 한 가족의 삶과 개화사상을 다룬 신소설로 효훈적, 계몽적이지요.

청일 전쟁으로 육련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어머니는 가족을 기다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대동강에 뛰어들이었다 구출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유학을 떠난다. 일곱 살 난 육련은 부모와 헤어져 헤매던 중 절환을 맞아 부상을 당하지만 이노우에 소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이노우에의 양녀가 되어 소학교에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던 육련은 이노우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련을 겪는다.

방황하던 육련은 우연히 기차 안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완서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화통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육련의 우수한 자질에 대한 칭찬과 기구한 과거의 이야기가 워싱턴 신문에 실리자 그 기사를 읽은 아버지 김관일이 육련을 찾아 상봉한다. 육련은

어머니 소식도 듣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그들은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문명 강대국으로 만드는 문제와 남녀평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평양에 있던 육련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하며 딸이 귀국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 작품은 고소설과는 달리 형식면에서 연문일치, 내용면에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하고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는 한계지요. 신교육, 신문명에 의해 문명개화가

##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신소설 권선징악 등 고소설 들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의 유학생 즉 지식인의 힘만으로 민족 전체를 계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지요. 청일 전쟁을 일청 전쟁으로 명명한 것이나, 육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일본 군인으로 설정하는 등 일부를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밖에 작품 전체에 우연이 남발되고 동기 유발이 없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지요. 시간 역전 기법이나 연문일치 문장 등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근대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한계들이죠. 따라서 최

초의 신소설이면서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인지의 '혈의 누'는 고전 소설적 요소와 근대 소설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육련을 구해 양팔을 삼은 이노우에 소좌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점은 이인지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짐작케 하죠.

신소설은 조선 말기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적 소설로 우리 소설이 고소설에서 근대 문학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에 창작된 소설들이죠. 이인지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대표적이지요.

신소설은 고소설의 규격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했지요. 문장은 일상어로 된 구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적 묘사도 두드러졌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설이 주로 시간의 흐름에 병행하여 사건이 진전되는 이야기 중심의 구성방법을 취했다면 신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사건 및 장면이 엮어가는 해부적 구성방법을 시도하였죠. 내용면에서 대다수의 신소설 작품은 서구의 근대사상을 받아들여 자주독립, 신교육, 여권존중, 계급타파, 자유결혼, 평민주의, 자아강제에 의한 현실고발 등을 담았으며 근대사상의 전파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신소설은 고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들도 있었지요. 작품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또한 신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선악 구도가 틀에 박혀 있어, 어디 이뿐인가요. 결말에서 고소설적 해피엔딩의 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요.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성당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 절에 가면 사람들이 탐 주위를 빙빙 도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ID:절에가면)

##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뜻 나타내

### 탐돌이의 유래와 의미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육身に 대해서는 경배하는 것조차 금하셨어요. 이러한 정신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을 위하여 철저히 계승되었답니다.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부처님 생전의 자비하신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형상인 '사리'를 모신 탐을 보면서 생전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화시키며 탐을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탐 자체를 우상화한 것은 아니고 탐을 보면서 부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였죠.

탐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탐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우며 신앙을 키워갔어요. 이것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민족의 큰 사상이 있을 때마다 탐돌이를 하며 개인적인 소원은 물론 민족적인 기원을 해왔어요. 유래에서 보았듯이 탐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항상 부처님을 뵈듯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우리는 절에 가면 불상이 모셔진 법당을 찾아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탐도 중요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불상은 탐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층 위에야 조성된 것으로 탐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릴 수 없었던 재가 신도들이 직접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숭고한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탐돌이를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좋겠지요?

(용화어린이카페)

